

## 테러 위협지각의 인지-사회 모형\*

이 현 주

이 영 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테러 위협에 대한 일반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인지, 사회, 정서요인들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 테러 여파가 주는 심각성, 그리고 테러의 여파에 대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다는 지각(인지요인)과, 테러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사회요인), 그리고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정서요인),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정보를 검색 또는 분석하고 관계망을 점검하는 행동(행동반응)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었다. 주된 결과는 인지와 사회요인이 정서요인에 영향을 주며 정서요인은 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인지요인 중 지각된 대처는 행동반응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테러에 대한 개인적 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테러, 위협지각, 대처효능성, 인지-사회 모형, 인지평가, 정서, 개인행동반응

---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KRF-2007-321-HS00022)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논문을 읽고 세심한 지적을 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이영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20-750)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2645, E-mail : yalee@ewha.ac.kr

위험(risk)은 사전적으로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지만(표준국어대사전, 2011),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지각된다(Slovic, 2000). 위험은 통제성, 자발성, 두려움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Fischhoff, Slovic, Lichtenstein, Read, & Comb, 1978). 전통적으로 위험지각에 대한 심리측정 연구들은 일반인의 위험지각이 두려움(dread) 요인(즉, 재해 결과의 심각성)과 지식 요인(즉, 재해에 대해 알려지지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테러(또는 테러리즘)는 심리적 공포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선전·선동 및 대량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 사회 및 개인을 극도로 혼란시킨다. 두려움과 지식 두 차원에서 볼 때, 테러는 “두렵지만 알려진” 위험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위험대상에 비해 통제할 수 없고 나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관찰할 수 있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알려진 위험인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다른 여러 형태의 테러(예, 폭탄테러, 생·화학테러)와 마찬가지로 두렵지만 알려진 위험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국민 개개인의安危를 위협하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위험지각과 개인의 행동반응들을 분석하고,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데 있다.

테러에 대한 위험지각 및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

#### 인지 및 정서요인

Paton, Smith와 Johnston (2005)은 지진 등 자

연재해(natural hazard)에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재난대비에 관한 사회-인지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재해위험에 관계당국이 대처하는 방식과 같은 사회요인 뿐 아니라, 특정 재해가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심각성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지와 같은 인지요인들이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 Lee와 Lemyre(2009)는 “테러”라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위험지각과 개인행동반응에 대하여 Paton등(2005)의 사회-인지모형을 도입하였다. Lee와 Lemyre(2009)의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테러에 대한 개인행동반응 역시 자연재해에 대한 개인행동반응과 마찬가지로 인지 및 사회맥락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테러에 대한 걱정은 사회요인보다는 인지요인과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사람들은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주며 자신이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테러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였다. 테러에 대한 개인준비나 정보검색 등의 행동도 다양한 인지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테러에 대한 걱정은 인지 및 사회맥락 요인 외에 행동을 독립적으로 예측했을 뿐 아니라 이 요인들과 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우선 사건 성격과 관련된 인지요인을 살펴 보자면, 사건의 지각된 가능성(probability)과 지각된 심각성(seriousness)이 위험지각에 관여한다. 어떤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며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라는 측면에서 위험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때(Kaplan & Garrick, 1981), 객관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심각성이 크다면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러나 위험지각에서는 비록 사건의 발생 확률이 작더라도 사건의 여파가 심각하다

면 위협을 크게 지각하는 확률무시(probability neglect)가 나타난다(Sunstein, 2003). Sunstein (2003)은 확률무시 개념을 통해, 테러처럼 공포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반응은 사건의 지각된 가능성보다는 테러공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지각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가능성과 심각성 중 어떤 것이 위험지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험지각을 다룰 때 이 두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건의 성격 외에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지요인은 개인의 내적 자원에 관한 것이다. 즉,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지각된 대처(coping)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Lee와 Lemyre(2009)의 연구에서 지각된 대처효능성(coping efficacy)은 테러에 대한 걱정에 부적 영향을 주고, 대처효능성은 걱정을 매개로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방사능 원천으로서 원자력과 방폐장 위험에 대한 Peters, Burraston과 Mertz(2004)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대처는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Peters 등(2004)의 연구에서 지각된 대처가 정서를 매개로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다루지 않았으나 위험대상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신종 플루)에 대해 Prati, Pietrantoni와 Zani (2011)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대처효능성이 개인행동반응(예, 비누로 손 씻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변수가 서로 무관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지각된 대처에 관한 상반된 결과가 위험대상의 유형(테러 대 신종 플루)과 대처방식이 달라서 나타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인지적 측면을 주로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위협에 대한 개인반응에서 인지체계와 정서체계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다(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한 예로 9·11 테러 이후 일반인들의 항공기 이용에 대한 연구(Bergstrom & McCaul, 2004)에서 테러에 대한 지각된 가능성과 항공기 이용의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인지와 정서요인을 둘다 고려하였을 때 “걱정”변수가 개인반응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한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그런데 위험지각에서 인지와 정서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처리과정이론(processing theories)으로서 위협에 대한 인지평가(cognitive evaluation)가 정서에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예, Slovic, 2000). Lerner와 Keltner(2000)는 각 정서는 사람들이 미래의 사건을 평가할 때 특정한 인지적 경향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테러에 대해 일시적으로 분노를 유도한 조건은 공포를 유도한 조건보다 테러의 부정적 결과들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테러와 무관한 사건들의 위험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도록 영향을 주었다(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

반면 평가이론(appraisal theories)에서는 위협에 대한 인지평가로부터 정서가 발생한다고 제안한다(예, Ellsworth & Scherer, 2003; Karasawa, 1995; Smith & Ellsworth, 1985). 예를 들어, Smith와 Ellsworth(1985)는 감정 기저의 평

가패턴을 정의하는 여섯 개의 인지적 차원(확신, 통제, 책임, 기대된 노력, 즐거움, 주의활동)을 확인하였다. 이 차원에 따른 평가패턴은 감정들의 기초를 제공한다. 확신과 통제는 분노와 공포를 구분짓는 중심차원이다. 분노는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과 부정적 사건을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공포는 일어난 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 사건이 외적 상황에 의해 통제된다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인지과정론에 대한 대부분의 처리이론 모형들이 동시발생적 정서만을 다루었으나, Kobbeltved, Brun, Johnsen과 Eid(2005)는 종단적인 교차지연 경로모형을 통해 위협지각을 연구하였고 걱정이라는 정서가 인지평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지평가가 걱정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이론과 선행연구들(Kobbeltved 등, 2005; Lee & Lemyre, 2009; Prati 등, 2011)을 바탕으로 하여 테러에 관한 위협지각에서도 인지요인이 정서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취한다.

### 사회요인

테러에 대한 개인행동반응을 설명하는데 인지 및 정서 외에 사회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위협의 사회적 확산(social amplification)이론에서는 절대적 위협이란 없으며, 위협은 사람들이 세상 및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루는 정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간주한다(Kasperson et al., 1988). 즉 위협에 대한 지각은 매체로부터 소통과 같은 사회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매체는 정보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문화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타당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따라서 사회

요인은 사회 속 위협에 대해 공유된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Heine & Lehman, 1995). 지진 대비에 관한 사회-인지모형(Paton et al., 2005)에서도 개인이 지진에 대비하려는 의도는 개인이 대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지, 정보원(source)을 신뢰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회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테러에 대한 위협지각 역시 사회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관신뢰(trust in authorities)는 특히 과학기술 재해에 대한 위협지각에서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Siegrist, Gutscher, & Earle, 2005; Slovic, 1993). 기관신뢰란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이 위협을 통제하고 최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감당하기에 이슈가 너무 크고 복잡한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Poortinga & Pidgeon, 2005). 한편 기관신뢰는 지식과 상호작용하는데, 과학기술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관신뢰와 위협지각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Siegrist & Cvetkovich, 2000). 과학기술 재해에서와 달리, 테러 위협지각에 대한 Shiloh, Güvenc & Önköl (2007)의 연구에서는 기관신뢰가 테러위험의 여러 요소들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신뢰는 테러 위협을 표상하는데 핵심요소이며 테러는 개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기관신뢰가 위협지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 개인행동반응

Prati 등(2011)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위협상황에서 따르도록 보건당국이 발표한 행동목록, 예를 들면

비누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기 등의 행동지침을 개인이 따르는지 조사하고 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인지 요인을 밝혔다. 테러와 같은 위협상황에서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할까? Lee와 Lemyre(2009)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 행동목록을 작성하였다. 개인대비행동, 정보검색행동, 회피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Lemyre (2009)의 연구에서 수집된 테러에 대한 개인행동반응 등을 행동반응목록에 고려하고 이러한 개인행동반응에 대한 사회 및 인지, 정서요인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 연구모형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테러에 대한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정하거나 단편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하나의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해 인지요인(지각된 가능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대처), 사회요인(신뢰), 정서요인(두려움, 걱정) 그리고 행동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함으로써 테러발생시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Lee와 Lemyre(2009)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테러 위협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모형을 검증하며, 다양한 다른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테러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이 아니므로 먼저 개인이 놓

여있는 사회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한 기관대비 외에 “기관신뢰”를 포함하였다. Lee와 Lemyre(2009)는 연방정부인 캐나다의 특성상 다양한 기관들(예,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의 대비상황을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지각된 기관대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각된 대비상황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 대한 기관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의 법이나 규제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인지적 차원에서 Lee와 Lemyre(2009)와 마찬가지로 테러의 지각된 가능성과 심각성, 그리고 대처 같은 인지요인을 측정하였고, 대처와 관련해서 대처효능성 뿐 아니라 정서의 인지평가에서 중요한 차원인 개인통제와 개인책임(예, Smith & Ellsworth, 1985)을 포함시켰다. 개인 스스로 테러의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상황이 결정된다고 지각하는 사람과 다르게 위협상황에 개인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ee와 Lemyre(2009)는 사건의 심각성 뿐 아니라 개인적 영향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개인적 영향 변수는 제외하였다. 사건의 심각성과 개인적 영향은 정적 상관관계( $r = .65$ )에 있었는데, 개인적 영향은 걱정에 정적 영향을 주고 사건의 심각성은 걱정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사건이 너무 심각하면 개인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걱정을 덜하게 된다는 가능성과 회귀분석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결과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변수 중에서 사건의 심각성만 측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정서차원에서 Lee와 Lemyre(2009)는 걱정(worry)을 단독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막연한 걱정 뿐 아니라 정서로서의 두려움(fear)을 측정하여 두 부정적 정서를 측정변수로 하였다.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Lee와 Lemyre(2009)의 연구는 캐나다 -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에 속하며 최근 중대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인 반면, 본 연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테러에 대해 조사하였으므로 한국 실정에 보다 적합하며, 2010년 11월 북한의 무력도발이 실제 발생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테러에 대한 개인행동반응을 예측하는데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의 테러에 대한 인지요인, 사회요인이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알아보며 정서요인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를 위협하다고 지각할수록(즉, 발생 가능성이 높고, 테러의 여파가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요인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여파를 개인적으로 잘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즉, 테러의 영향에 대처할 수 없고, 테러의 영향을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책임이 없다고 지각할수록) 정서요인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테러시 정부에 대해 신뢰할수록(즉, 정부가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정부의 법이나 규제, 전문가들을 신뢰할수록) 정서요인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테러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질수록(즉, 두려워하고 걱정할수록)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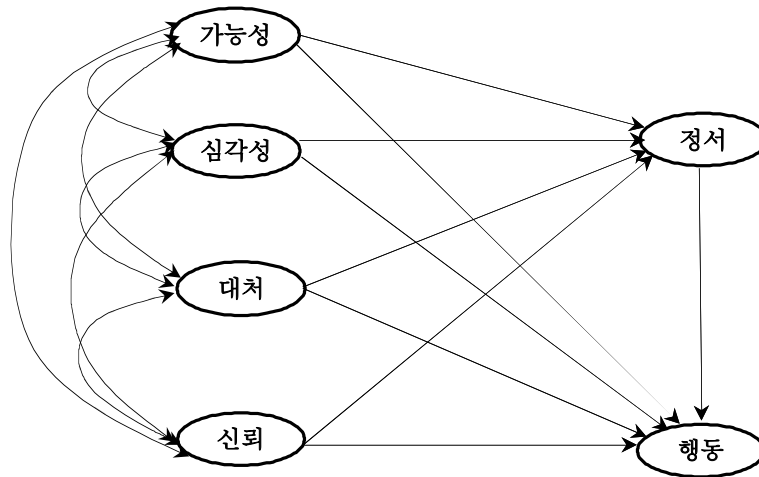


그림 1. 테러 위협지각의 인지-사회 모형

## 방 법

### 조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지방의 4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 249명(남자 111명, 여자 137명, 무응답 1명)이다. 평균 연령은 21.51세( $SD = 2.16$ )였다.

### 조사 도구

설문지는 북한에 의한 테러에 대해 인지요인, 사회요인, 정서반응 및 개인의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에게 북한에 의한 테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 또한 북한에 의한 테러가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함으로써 이 이슈에 대한 응답자들의 주관적 지식과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위협대상(예,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중요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슈가 중요하지만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기관신뢰가 위협지각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많이 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신뢰가 위협지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예, Earle, 2010).

### 인지요인

선행연구(Lee & Lemmyre, 2009; Peters et al., 2004; Smith & Ellsworth, 1985)에 근거하여 북한의 테러에 대한 위협지각의 인지차원은 지각된 가능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대처효능성, 지각된 개인통제 및 지각된 개인책임에 관한 5가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향후 1년 내에 얼

마나 될 것 같은지”(가능성), “북한에 의한 테러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할지”(심각성), “북한에 의한 테러의 여파에 당신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대처효능성), “북한의 테러가 당신의 삶에 주는 영향을 당신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개인통제), “북한의 테러가 당신의 삶에 주는 영향에 당신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개인책임)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0 = 전혀 아니다, 4점 = 매우 그렇다). 주축 요인 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대처효능성, 지각된 개인통제, 지각된 개인책임이 “**대처**” 차원으로 묶였다. 세 항목 간 신뢰도는  $\alpha = .629$  이었다. 따라서 구조모형의 인지요인에는 가능성과 심각성 및 대처가 포함되었다.

### 사회요인

사회측면에서 지각된 기관대비 뿐 아니라 지각된 기관신뢰를 측정하였다. 테러에 대한 선행연구(Lee & Lemmyre, 2009)에서 다양한 기관별도(예,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병원 및 의료기관, 비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질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의한 테러에 대해 지각된 정부대비수준을 측정하면서 또다른 중요 사회요인인 기관신뢰(정부 및 전문가 집단)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테러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에 대한 정부의 법과 규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테러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0 = 전혀 아니다, 4점 = 매우 그렇다). “**신뢰**” 차원으로 묶인 세 항목 간 신뢰도는  $\alpha = .730$  이었다.

### 정서반응 요인

테러에 대한 정서반응은 두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의 테러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두렵다고 느끼는지”(두려움), “북한의 테러가 당신에게 얼마나 걱정되는지”(걱정)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0 = 전혀 아니다, 4 점 = 매우 그렇다). 두 항목 간 신뢰도는  $\alpha = .783$  이었다.

### 개인 행동반응

북한의 테러에 대한 개인의 행동반응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당신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준비로부터 정보를 검색, 분석하고 관계망을 점검하기에 이르기까지 14개 행동을 그렇다(1)와 아니다(0)로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s) 테러에 대한 행동지침(Dallaire et al, 2005)과 Lee와 Lemyre(2009)에서 다룬 행동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행동목록의 분류를 위해 본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별도의 대학생 집단(208명)을 대상으로 사전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전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주축 요인 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과 사각회전(promax)<sup>1)</sup>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부록 참고). 측정항목 중에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비상금 준비하기와 무력도발이나 테러를 다룬 뉴스 기사를 일부러 멀리하기가 기타 요인으로 묶였으나 KR-20 계수<sup>2)</sup>가 지나치게 낮아(.254)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과 요인별 적재량이 높은 측정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준비**(구급약 준비하기, 구명도구 준비하기, 비상식품 준비하기, 비상대피소 확인하기, 공공장소 피하기), **정보검색**(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 얻기,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를 통해 정보 얻기), **관계망점검**(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변인 연락처 확인하기,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불안 달래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기), **정보분석**(다른 테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무력도발이나 테러에 관한 글 찾아 읽기). 기타 요인을 제외한 이들 4개 요인에 대한 평정치들의 평균을 구하여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 조사 실시

2011년 3~5월 중에 심리학 관련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 여분이 소요되었다.

### 분석방법

기술통계와 요인분석에는 SPSS 15.0을 사용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서 AMOS 19.0(평가판)을 사용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 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자료의 결측치(missing values)로 인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1) 추출된 요인 간에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홍세희, 2010).  
2) 항목간 신뢰도는 이분변인간 문항간 신뢰도인 KR(Kuder-Richardson)-20을 구하였다.



## 결 과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평정 자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해 지각된 중요성과 지각된 지식은 5점 척도(0 = 전혀 아니다, 4 = 매우 그렇다)에서 각각 중간점수(midpoint) 이상으로서(중요성  $M = 2.49$ ,  $SD = 1.09$ ; 지식  $M = 2.30$ ,  $SD = 1.00$ ), 사람들은 북한의 테러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하며 북한의 테러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북한의 테러에 대한 감정(affect)을 5점 척도 즉 매우 나쁘다(-2)에서 매우 좋다(+2)로 평정하였다. 응답자들의 감정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M = -1.75$ ,  $SD = 0.56$ ), 왜도와 첨도가 각각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Skewedness = 2.83, Kurtosis = 10.85) 이 변수는 이후 모형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분석에서 관심 대상인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테러 여파의 심각성, 및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중간점수 이상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중간점수 이하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봄, 응답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무력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의 여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여파에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며, 테러에 대해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정서반응을 보였다. 그 당시 인터넷이나 TV 등 매체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테러를 분석하고, 주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대처 방법을 문의하였으며 구명도구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인지 및 사회요인이 북한의 테러에 대한 정서반응과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인지요인으로는 테러의 가능성, 심각성, 대처를, 사회요인으로는 기관신뢰를 고려하였고, 정서반응과 개인행동반응을 포함하였다. 모형에 대한  $\chi^2$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형은 기각되지만  $\chi^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이들 지수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적합도 지수 외에, “완전매개(full mediation)” 모형과 직접(only direct)모형을 모형 비교의 근거로 삼았다.

직접모형은 모든 인지요인이 행동반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는데, 이 모형에서 정서요인은 잠재요인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변수들과 경로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완전매개 모형은 모든 인지 및 사회요인들이 정서요인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줄 뿐 행동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에 가깝다. 즉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는 .06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이러한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근거로 삼고, 인지 및 사회요인 중에서 행동반응으로 직접 경로를 추

표 1. 주요 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249)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기능성	2.31	1.07	.	.04>	.102	.124*	-.017	.048	-.021	.018	.033	.196**	.078	.031	.078	.106*
2. 심과성	3.47	0.78	.	.	-.052	-.06>	-.240***	-.016	.115*	.005	.421***	.421***	.121*	-.038	.090	.042
3. 통제(대처)1	1.36	1.17	.	.	.	.371***	.386***	.104	.083	.020	-.222***	-.068	.103	-.018	.027	.080
4. 외입(대처)2	1.09	1.12	.	.	.	.	.331***	.172**	.144*	.007	-.162**	.025	.163**	.066	.126*	.130*
5. 대외효능성(대처)3	1.47	1.03	.	.	.	.	.	.148*	.084	.119*	-.355***	-.111*	.083	.001	.068	.066
6. 정무신뢰(신뢰)1	1.09	0.88	.	.	.	.	.	.	.514***	.488***	-.060	.003	.054	-.027	.110*	-.007
7. 전문가신뢰(신뢰)2	1.33	0.99	.	.	.	.	.	.	.	.420***	-.053	-.001	.202***	.045	.120*	.144*
8. 정무대비(신뢰)3	1.05	0.92	.	.	.	.	.	.	.	.	-.087	-.052	.067	-.077	-.022	-.005
9. 두려움(정서)1	2.82	1.12	.	.	.	.	.	.	.	.	.	.644***	-.100	.100	.086	.001
10. 외정(정서)2	2.89	1.06	.	.	.	.	.	.	.	.	.	.	.044	.121*	.115*	.075
11. 개인논비(개인행동반응)1	0.07	0.19	.	.	.	.	.	.	.	.	.	.	.	.226***	.357***	.242***
12. 정 보폭(개인행동반응)2	0.60	0.44	.	.	.	.	.	.	.	.	.	.	.	.	.354***	.228***
13. 관적양점(개인행동반응)3	0.18	0.26	.	.	.	.	.	.	.	.	.	.	.	.	.	.247***
14. 정 보폭(개인행동반응)4	0.27	0.35	.	.	.	.	.	.	.	.	.	.	.	.	.	.

주: 1) 1에서 10까지는 5점 척도 평점(0 = 전혀 아니다, 4 = 매우 그렇다)  
 \*\*p<.01, \*\*\*p<.001, \*p<.05

가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라고 볼 수 있다 (Mathieu & Taylor, 2006 참고).

표 2는 가능성, 심각성, 대처 및 신뢰 변수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들이 제시되어 있다. 인지요인 중 하나인 가능성 변수로부터 행동반응에 경로를 추가시킨 “P 모형”은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고( $\Delta\chi^2(1) = 2.151, n.s.$ ), 심각성 변수로부터 행동반응 경로를 추가한 “S 모형” 역시 적합도가 향상되지 않았다( $\Delta\chi^2(1) = .662, n.s.$ ). 그러나 “C 모형”의 경우 ‘대처’ 변수로부터 행동반응 경로를 추가하자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Delta\chi^2(1) = 8.325, p < .01$ ),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고( $\beta = .033, p = .010$ ),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z = 1.89, p = .058$ ). 따라서 대처는 정서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요인인 신뢰 변수로부터 행동반응에 경로를 추가시킨 “T 모형”의 경우에는 경로 추가로 모형 적합도가 향상되지 않았다( $\Delta\chi^2(1) = 3.393, n.s.$ ).

이와 같은 매개분석 결과, 테러 위험지각의

인지-사회모형 중 “C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7) = 119.210, p < .001$ ; TLI = .862; CFI = .912; RMSEA = .056). “C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즉, 테러라는 위험상황에 대해서 인지요인들이 정서를 매개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각 인지요인들이 정서에 영향을 주며, 정서가 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인지요인 중 대처의 경우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서반응의 경우  $R^2$ (설명된 변량)은 36%, 행동반응의 경우 11%였다. “C 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발생 가능성과 테러 여파의 심각성은 정서요인을 **완전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사건의 지각된 가능성과 심각성은 각각 부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주며(가능성  $\beta = .12, p = .054$ ; 심각성  $\beta = .45, p = .001$ ), 부정적 정서는 행동반응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beta = .25, p = .018$ ). 다시 말해, 테러의 가능성이 높고 심각성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 그에 따라 개인행동반응이 증가하였다.

둘째, 테러 여파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지는 정서요인을 **부분매개**

표 2. 모형별 적합도 지수(N=249)

테러 위험지각의 인지-사회모형	Chi-square difference test				적합도 지수		
	$\chi^2$	df	$\Delta\chi^2$	$\Delta df$	TLI	CFI	RMSEA
직접 모형	118.853	65	8.682	3	.853	.909	.058
“P 모형”	125.384	67	2.151	1	.845	.901	.059
“S 모형”	126.873	67	.662	1	.841	.899	.060
“C 모형”	119.210	67	8.325	1	.862	.912	.056
“T 모형”	124.142	67	3.393	1	.848	.903	.059
완전매개 모형	127.535	68			.844	.899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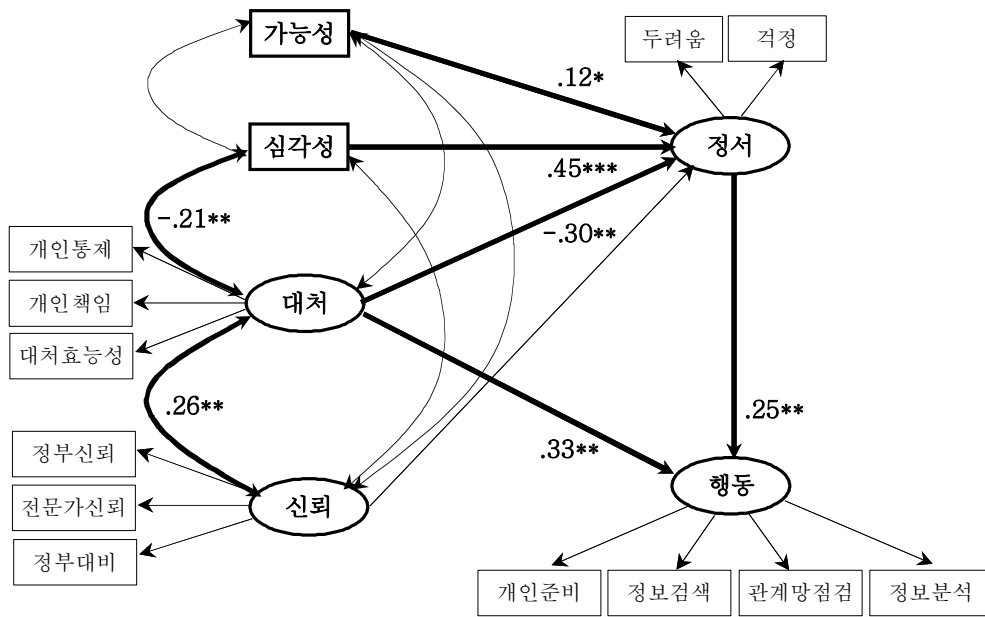


그림 2. 테러 위험지각의 인지-사회 모형 중 "C 모형" (N=249): 가능성, 심각성, 대처는 정서를 매개하여 행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대처는 정서를 매개하지 않고 행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chi^2=119.210$ ,  $df=67$ ,  $TLI=.862$ ,  $CFI=.912$ ,  $RMSEA=.056$ .

\*\*\* $p < .001$ , \*\* $p < .01$ , \* $p < .05$

로 하여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대처는 부정적 정서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beta = -.30$ ,  $p = .002$ ). 대처는 정서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행동에 직접 정적 영향을 주었다( $\beta = .33$ ,  $p = .010$ ). 따라서 테러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고 그에 따라 개인행동반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 정서를 매개하지 않고 개인행동반응이 증가하였다.

셋째, 테러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개인의 행동반응을 증가시켰다( $\beta = .25$ ,  $p = .018$ ). 즉 테러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할수록 개인준비, 정보검색, 관계망 점검, 정보분석과 같은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에 대해 정부에 대한 기관

신뢰는 정서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 = -.03$ ,  $p = .718$ ). 즉, 테러에 대해 정부가 잘 대비하고 있거나 정부의 법과 규제,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기관신뢰는 인지요인인 대처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r = .26$ ,  $p = .008$ ). 이로써 기관신뢰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가설이 검증되었다.

요약하면, 테러에 대해 발생 가능성, 심각성과 대처는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대처의 경우 개인행동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관신뢰는 부정적 정서나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테러에 대한 위험지각과 개인의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테러위험에 관한 Lee와 Lemyre(2009)의 사회인지 모형을 한국인의 위험지각과 개인행동반응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였다. Lee와 Lemyre(2009)와는 달리, 북한의 테러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인지, 사회 및 정서, 행동요인을 하나의 구조방정식 모형 내에서 통합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테러 위험지각의 인지-사회 모형 중 "C 모형"이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테러에 대한 각 인지요인(테러 발생에 대한 지각된 가능성, 테러 여파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개인적 대처)이 정서를 매개로 행동반응에 영향을 준다. 테러 가능성과 심각성은 부정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주어 지각된 가능성과 심각성이 클수록 부정적 정서(두려움과 걱정)도 커진다. 반면 대처는 부정적 정서에 부적 영향을 주어 지각된 대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도 커진다. 이처럼 인지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 정서는 개인행동반응에 정적 영향을 준다. 다른 인지요인과 달리 지각된 대처는 정서를 매개로 할 뿐 아니라 행동반응에 직접 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자들의 예측과 다르게 사회요인인 기관신뢰는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기관신뢰는 지각된 대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에 대한 위험지각은 정서를 통해 개인행동반응을 증가시킨다.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테러의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개인행동 반응들도 증가한다.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테러의 위험에 대해 연구한 Lee와 Lemyre(2009)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테러 가능성이나 심각성이 부정적 정서인 걱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두 인지요인들이 개인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었는데,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개인준비나 정보검색에 영향을 주었으나 테러의 심각성은 개인행동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는 캐나다의 경우 테러의 발생가능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중요할 뿐 심각성은 추상적으로만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 위협의 성격은 다르지만 실제로 발생한 신종 플루에 대한 위험지각을 조사한 Prati 등(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병감염의 가능성과 심각성 모두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테러의 여파에 대해 지각된 대처는 정서를 통해 또는 정서를 통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반응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대처는 대처효능성, 개인통제와 개인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각된 대처는 Lee와 Lemyre(2009)의 테러 관련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Shiloh 등(2007)의 테러공격에 대한 인지 및 정서표상에 대한 연구와 Peters 등(2004)의 과학기술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통제는 중요한 변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러의 영향에 개인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고 테러의 영향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각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며, 두려움과 걱

정이 커질수록 개인행동반응도 증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각된 대처는 개인행동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북한에 의한 테러의 여파에 대한 지각된 대처가 행동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대처효능감, 개인통제감 및 개인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테러에 대해 부정적 정서 즉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수록 개인의 행동반응이 증가한다. 북한의 테러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할수록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명도구나 구급약 등을 준비하며, 테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검색하고, 비상시 연락할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이전에 발생한 무력도발이나 테러에 관한 글을 찾아 비교분석한다.

넷째, 사회요인인 기관신뢰는 테러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연구자들은 위협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므로(Kasperson et al., 1988), 테러라는 국가적 위협에 대해 정부기관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각하고 신뢰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기관신뢰는 개인이 감당하기 크고 복잡한 이슈의 위협지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Flynn, Burns, Mertz, & Slovic, 1992; Midden & Huijts, 2009; Poortinga & Pidgeon, 2005). 북한의 테러 역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사건이지만, 여기에 지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듯하다. 선행연구들(예, Siegrist & Cvetkovich, 2000)은 잘 알려진 위협에 대해서는 기관신뢰와 위협지각 사이에 상관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으

로 테러는 “두렵지만 잘 알려진” 위협이며,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테러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에 있어서 도발주체나 공격대상이 드러나 있고 테러의 피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식부족으로 인한 기관신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응답자들이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테러의 여파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기관신뢰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기관신뢰가 지각된 대처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러는 본질상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테러의 영향에 대해서 개인이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신뢰와 지각된 대처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로 인한 위기를 실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내부의 갈등이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테러를 자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김상겸, 이대성, 2009; 노호래, 이대성, 2004).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대테러기구를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고, 국방이나 통일정책 차원에서 테러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테러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 및 심리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테러로 인해 군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본 연구는 테러의 위협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위험지각과 행동반응을 연구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테러 위험지각에 대한 심리적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중요한 결과들을 얻었으나 몇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예, 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에 의한 테러에 대한 위험지각과 개인행동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또는 지역적으로 북한과 근거리 거주자와 원거리 거주자 간에 북한의 테러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인구분포상 연령과 지역 등을 안배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행동반응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관계망점검행동과 정보분석행동의 신뢰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연평도 포격사태시 개인이 실제로 했던 행동을 확인하여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분류된 행동범주는 Lee와 Lemyre(2009)의 구분과 유사하였다. 비록 한 요인으로 묶인 개별 항목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두 연구에서 개인준비행동과 정보검색행동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개인들이 테러위험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망점검에는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주변인 연락처 확인하기,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불안 달래

기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캐나다와 같은 서구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가족과 친척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정보분석에는 다른 테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무력도발이나 테러에 관한 글 찾아 읽기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은 최근 중대한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는 캐나다보다는 분단 이후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합한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 같은 테러위험에 대한 추후연구에서 관계망점검이나 정보분석행동들을 개인행동반응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앞으로 문항개발을 통해 이 변수들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11).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김상겸, 이대성 (2009).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 통일정책연구, 18, 67-96.
- 노호래, 이대성 (2004).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통일정책연구, 13, 135-162.
- 홍세희 (2010). 구조방정식 모형.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S & M Research Group.
- Bentler, P.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gstrom, R. L., & McCaul, K. D. (2004). Perceived risk and worry: The effects of 9/11 on willingness to f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 1846-1856.
- Dallaire, C., Krewski, D., Lemyre, L., Bouchard,

- L., Brand, K., & Mercier, P. (2005). Project 1.1: Interviewing Canadians about health risk perception and acceptability. In D. Krewski, L. Lemyre, L. Bouchard, K. Brand, C. Dallaire, P. Mercier(Eds.) *Public perception and acceptable levels of health risk among Canadians: A research report to health Canada*. Ottawa, Ontario, Canada: Health Canada, research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division report, No. 6795-15-2002/4770021.
- Earle, T. C. (2010). Trust in risk management. *Risk Analysis*, 30, 541-574.
- Ellsworth, P. C. & Scherer, K. R. (2003).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572-595). Cambridge, U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chhoff, B., Slovic, P.,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127-152.
- Flynn, J., Burns, W., Mertz, C. K., & Slovic, P.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 417-429.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plan, S., & Garrick, B. J. (1981). On the quantitative definition of risk. *Risk Analysis*, 1, 11-27.
- Karasawa, K. (1995). Cognitive antecedents of emotions: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37, 40-55.
- Kasperson, R. E., Renn, O., Slovic, P., Brown, H. S., Emel, J., Gobel, R., Kasperson, J. X., & Ratick, S.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 177-187.
- Kobbeltved, T., Brun, W., Johnsen, B. H., Eid, J. (2005). Risk as feelings or risk and feelings?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Journal of Risk Research*, 8, 417-437.
- Lee, J. E. C., & Lemyre, L. (2009).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of terrorism risk perception and individual response in Canada. *Risk Analysis*, 29, 1265-1280.
- Lerner, J. S., Gonzalez, R. M., Small, D. A., & Fischhoff, B. (2003). Emotion and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 144-150.
- Lerner, J. S., & Keltner, D.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ment and choice. *Cognition and Emotion*, 14, 473-493.
- Loewenstein, G. F., Weber, E. U., Hsee, C. K., & Welch, E. S.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 267-286.
- Mathiens, J. E., & Taylor, S. R. (2006). Clarifying conditions and decision points for mediational type inferences in organizational behavior.



-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7, 1031-1056.
- Midden, C. J. H., & Huijts, N. (2009). The role of trust in the affective evaluation of novel risks: The case of CO2 storage. *Risk Analysis*, 29, 743 - 751.
- Paton, D., Smith, L., Johnston, D. (2005). When good intentions turns bad: Promoting natural hazard preparedness.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0, 25-30.
- Peters, E., Burraston, B., & Mertz, C. K. (2004). An emotional-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24, 1349-1367.
- Poortinga, W., & Pidgeon, N. F. (2005). Trust in risk regul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the acceptability of GM food. *Risk Analysis*, 25, 197-207.
- Prati, G., Pietrantony, L., Zani, B. (2011). A Social-cognitive model of pandemic influenza H1N1 risk perception and recommended behaviors in Italy. *Risk Analysis*, 31, 645-656.
- Shiloh, S., Güvenç, G., & Önköl, D. (2007). Cognitive and emotional representations of terror attacks: A cross-cultural exploration. *Risk Analysis*, 27, 397-409.
- Siegrist, M., & Cvetkovich, G. (2000). Perception of hazard: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 713-719.
- Siegrist, M., Gutscher, H., & Earle, T. C. (2005). Perception of risk: The influence of general trust, and general confidence. *Journal of Risk Research*, 8, 145-156.
- Slovic, P. (1993).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 675-682.
-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 311-322.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unstein, C. R. (2003). Terrorism and probability neglect.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6, 121-136.
- Tucker, L., & Lewis, C. (1973). The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논문 투고일 : 2011. 10. 05  
1 차 심사일 : 2011. 10. 12  
게재 확정일 : 2011. 11. 07

## **A Cognitive-social Model for Risk Perception of Terrorism**

**Hyunju Lee**

**Young-A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for risk perception and individual response against terrorism, including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In this model we measured perceived probability of terrorism,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aftermath, and perceived coping(cognitive factors), trust in authorities, in expert group and in preparedness of institutions(social factors), fear and worry(emotional factors), individual preparedness,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analysis, and checking relational network(individual behavior responses). Major finding was that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fluenced on emotional factors and then emotional factors influenced on the individual responses. The perceived coping, which one of cognitive factors was linked with individual responses directly and indirectly via emotion factor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perceived coping in preparing for terrorism.

*Key words : terrorism, risk perception, perceived coping, cognitive-social model, cognitive evaluation, emotion, individual behavior response*

## 부 록

개인행동반응 요인분석 결과(N=208)

문항	개인 준비	정보 검색	관계망 점검	기타	정보 분석
구급약을 준비하였다.	<b>.863</b>	.206	.237	.328	.181
방독면 등 구명도구를 준비하였다.	<b>.703</b>	.020	.173	-.027	.214
라면이나 생수 등 비상식품을 준비하였다.	<b>.569</b>	.171	.357	.310	.103
주변 비상대피소를 확인하였다.	<b>.469</b>	.113	.434	.036	.260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해 다녔다.	<b>.418</b>	.013	.322	-.009	.356
무력도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127	<b>.796</b>	.366	.150	.207
무력도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104	<b>.721</b>	.311	.155	.247
무력도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204	.407	<b>.718</b>	.188	.156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	.286	.327	<b>.539</b>	.324	.252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서 불안을 달랬다.	.097	.091	<b>.352</b>	.111	.155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비상금을 준비하였다.	.138	.198	.271	<b>.796</b>	.070
무력도발이나 테러를 다룬 뉴스 기사를 일부러 안 보려고 했다.	.168	-.056	.004	<b>.190</b>	.005
무력도발이나 테러에 관한 주제의 글을 다방면으로 찾아 읽었다.	.186	.242	.289	.119	<b>.746</b>
다른 무력도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164	.171	.137	-.009	<b>.307</b>
고유치	2.227	1.651	1.843	1.090	1.154
설명변량(%)	19.66	9.48	5.35	4.12	3.52
KR-20	.713	.733	.545	.254	.401